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2월 1일(금)

(음력 12월 27일)

Пятница

1 февраля 2019г.

№ 4(11682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단신

부지사로 세르게이 부드킨 임명

사할린주 연방 수석 감독관이 사할린주 부지사로 임명되었다. 연방 수석 감독관으로 그는 2016년 6월부터 활약해왔으며 부지사로서 그는 내부정책을 맡게 된다. 부드킨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는 1972년에 사할린주 코르사코브시에서 출생, 법학을 전공하고 20여년간 보안국에서 활동했다.

조선공화국 영사, 주두마 의장 대행과 만나

블라디보스토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총영사관 박영훈 영사가 이번주 사할린을 방문해 주두마를 찾아 알렉산드르 이와쇼브 의장 대행과 만났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만남에서 사할린주와 조선공화국 간 상호교류, 협력 전망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주정부 측은 경제와 인도적 및 별도 분야에서 협력 강화와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 관계발전을 위해 사할린 측에서는 조선의 운동선수들과 복싱경기의 공동행사에 대한 제안을 했고 조선공화국 측에서는 농구 친선경기 개최를 제안했다. 이와쇼브 부의장은 올해 사할린에서 진행되는 첫 <아시아 아이들>유·청소년국제대회에 다른 국가들의 참가에 열려 있음을 언급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제22회 <체호브 낭독회>학술대회 개최

1월 29일-30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섬>체호브책 박물관에서 제22회 <체호브 낭독회>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참가자들을 사할린주 문화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 권한 대행이 환영한 가운데 사할린주 티몹스코예·포로나이스크·토마리·우글레고르스크 등 구역을 비롯해 예카제린부르크, 일본 삿포로 등지에서 학교 교사와 학생, 도서관 전문가, 지역 연구자, 역사학자, 문화 및 교육 기관 대표들 40여 명이 참가해 체호브 탄생 159주년을 기념하며 발표했다.

러시아 화가 동맹 사할린지부 30주년 기념

2월 1일 18시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러시아 화가연맹 사할린지부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사할린지부는 1989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미술 분야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19명의 회원이 있다. 그 동안 사할린 화가 (아나톨리 니, 기위 만트카와, 블라지미르 체보타료브, 주명수, 유리 스테파노브) 5명이 러시아 공훈화가 칭호를 받았고 사할린의 화가 포르트 시첸코가 공훈문화예술인 칭호를 받았다.

기념식에서 정부와 예술단체들의 축하가 있을 것이고 축하공연도 준비된 가운데 <지웨르췌스멘트>챔버앙상블, 색스폰 연주 알렉세이 안, 안나 드부레첸스카야 가수, 장태호 시인, 한 세르게이 바르드, <와리안트>그룹이 출연할 예정이다.

양 세르게이 작가의 문학의 밤 개최

2월 4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주도서관에서 러시아 작가 동맹 양 세르게이 작가의 문학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살고 있다>란 문학의 밤 행사는 <사할린 작가 초상화>기획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 3월에 동포작가 이자 시인은 교회(70세)를 맞이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레닌그라드 봉쇄 75주년 기념

▲ 지난 29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레닌그라드 봉쇄 75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장에 대조국 전쟁 참전자, 레닌그라드의 거주자, 정부 및 단체 대표자, 학생 등이 대조국전쟁, 봉쇄되었던 레닌그라드에 희생자가 백만 명이 넘었던 역사적 시대의 한 페이지를 회상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주예산, 사회복지 시설 건설에 1000억 루블리 책정

사할린주에서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건설을 시작한다. 이에 주예산에서 1000억 루블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극동지역건설회사 대표자회의에서 사할린주 정부 세르게이 올론체브 부수상 권한 대행이 밝혔다. 특별투자프로그램이 사할린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에 목표를 둔 가운데 자금이 책정되었다. 3년간 사할린주에는 11개 학교, 7개 유치원, 12개 의료보건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 예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주 아동병원·상담진료센터·응급진료소 건물 신축, 코르사코브 중앙구역병원에 30개 침상이 있는 현대 감염병관리소와 원로들을 위한 복지회관, 샤흐초르스크에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아나와에는 수영장이 있는 종합체육 보건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의 5월 명령에 따라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주택건설에 100억 루블리를 지급하고 공사 속도를 2배 이상 높일 예정이다.

주택공공사업 분야에서도 종합적 작업을 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오하공항의 활주로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여객 승강장 개건을 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오하 구간 도로 아스팔트포장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건설회사 대표들은 주정부와의 상호협력 개선과 건설 분야의 현대화를 주장했다.

사할린 주지사 대행, 푸틴 대통령에게 <아시아 아이들>첫 대회 준비과정 보고

사할린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러시아 정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관광과 보건 분야의 발전문제를 심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제1회 <아시아 아이들>국제 동계스포츠대회에 대한 사할린주의 준비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러시아 정부 올가 골로제츠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국제적인 대규모 대회 중 하나로서 대회 개최자 중에는 45개국을 대표한 아시아 올림픽위원회가 있다.

리마렌코 지사 대행은 푸틴대통령에게 <아시아 아이들> 대회에서 6가지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고 선수단들의 숙박 및 숙식을 위해 약 60개 시설이 준비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사할린에 마련된 제반시설은 앞으로 중요 경기를 위한 훈련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가스프롬, 포로나이스크구역에서 액화 천연가스 공장 건설 예정

사할린주 포로나이스크구역에 액화천연가스 단지를 <가스프롬>회사가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얼마 전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과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레르 이사회 회장이 만남에서 협약을 맺고 쿠릴섬과 사할린 가스운영 시스템에서 배제된 지역들에 마을의 가스화에 따른 공동사업을 논의했다.

우선 1단계로 포로나이스크구역에서 액화천연가스공장을 건설한다. 공장에서 가스 생산량은 연 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쿠나쉬르, 쉬코탄과 이투루프 지역의 전기 및 열공급 장비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를 선박으로 수송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사할린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구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1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지방 사할린 한인들과 만남을 갖고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전달, 현 한인회 문제 설명 지구촌동포연대와 함께 크라스노고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보쉬냐코워, 샤호초르스크 방문

2015년부터 KIN (지구촌동포연대)가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제작하고 해마다 사할린에 와서 지방을 다니며 동포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새고려신문 기자들은 이들과 자주 동행하고 취재하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 김종철 킨 공동대표를 비롯해 10명 (소개 3명에)이 사할린을 찾았다. 1월 26일 사할린에 도착한 이들은 조영관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다음날 우글레고르스크로 떠나기로 했다.

필자는 두 번이나 포로 나이스크, 마카로브 등, 동부지방을 따라가본 적은 있었지만 킨 단체와 우글레고르스크 방문은 처음이었다.

한국분 9명, 운전기사를 포함해 사할린주한인회 측에서 4명, 사할린주 정부 측에서 1명, 필자까지 포함해 15명이 27일 아침 10시 반에 주한인회의 큰 버스를 타고 우글레고르스크로 떠났다. 그전에 한국대표단은 지난 10월에 세상을 떠난 김운덕 할아버님의 묘를 찾아 참배했다.

사할린주 사회원 위원으로서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우리와 함께 일정을 함께하기로 했다.

돌린스크에서 잠깐 내렸다가 크라스노고르스크까지 직진해갔다. 일부 비포장도로가 있었지만 도로

가 거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편찮았다.

크라스노고르스크의 <스카즈카>카페에서 크라스노고르스크한인회 문종기 회장과 만났다. 그는 몹시 반가워했다. 킨 측에서 문 회장에게 달력과 선물을 전달했다. 문종기 회장은 이곳 현황과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러시아식 요리를 점심으로 먹고 빨리 출발했다.

10여년 만에 우글레고르스크 고향에 가는 필자는 창가를 자주 내다보았다.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 측에서 중앙구역 도서관에서 동포모임 자리를 마련했다. 17시에 약속 장소에 들어갔을 때 이미 15~20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몇 명은 1세 분들이었다. 할머니들은 안면이 있는 킨 활동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우글레고르스크 강북숙 회장은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소개하고 박 회장은 같이 온 사람들(한국대표단, 홈스크 이산가족협회 신연자 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운영위원장인 김종길 세종한글학교 교사와 필자 등)을 소개했다.

킨의 김종철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강북숙 회장에게 대표로서 달력 70개를 전달했다.

먼 지방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을 자주 보

지 못하니 이날 주한인회 사업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다. 사람들은 특히 지방한인회 지원금, 의약품 배분 사항 등에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이 자세히 설명했다. 의약품 대신 의약품비용을 현금으로 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일본 지원금은 의약품 구매에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박 회장이 답변했다.

강북숙 우글레고르스크 회장은 주한인회가 추진하는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우글레고르스크도 참여하고 싶다고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박순옥 회장은 주정부 장려금공쿠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지원금을 따낼 경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

박순옥 회장은 지난해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추진하는 기획, 남북공연 등으로 진행된 광복절 행사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회의시간 다수는 사할린 동포 무연고 추모관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2018월 8월 30일 아나와 구역 록 산원 개인 농장에서 현덕수 사할린한국한인회 회장이 지은 사할린 강제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준공식이 있었다. 사할린한국한인회를 사할린한인협회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현덕수 회장을 반대하여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대표자회의에서 모



든 지방한인회 대표들이 이 추모관 준공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박순옥 회장이 우글레고르스크 한인들에게 설명했다. 추모관에 7000여 개 위패들이 모여 있는데 대다수가 무연고자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사할린 동포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다. 주한인협회 측에서 이와 관련해 고소를 했다. 현재 현덕수 회장 측에서 추모관 이름을 강제징용 희생자로 바꾸었는데

생까지도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성들의 이름도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가족의 허락 없이 위패를 만든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주한인협회 측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묘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위패를 만든 것이 분명하다. 그 명단에는 주로 가족이 있는 사망자 이름이 올려 있다. 무연고 묘는 주로 파괴되고 이름조차도 확인이 어렵다. 사할린에 가족 없는 강제동원자 다수는 1970년대 사망했다. 아직 대다수 동포는 자신의 가족의 위패가 추모관에 있

을 수 있다는 걸 모른다고 박 회장이 강조했다. 주한인회 측에서는 현덕수 회장이 사할린 동포들에게 사과하고 추모관을 폐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주한인회 측에서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에 음력설 지원금도 지급했다.

이번 달력 사진은 김지연 작가가 제공했다. 이미 몇 년 동안 사할린을 찾아온 그는 이번 달력 사진을 찍을 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촬영했다고 우글레고르스크 할머니들에게 설명했다. (7면에 계속)

이모저모

지난 한 해 동안 사할린주에 수입된 외제차량 2.5 배 증가

작년에 사할린에 수입된 자동차들 1627대 중 1517대는 개인적으로, 나머지는 법인회사들이 수입했다. 2017년에 수입된 자동차는 674대였다고 주세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해외에서 차량 수입의 증가추세에 대한 보도는 이미 10월에 전해졌고 현재는 한 해의 전반적 통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세관 측에 따르면 2.5배의 증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몇 가지 요인과 관련짓고 있다. 첫째 <에라 글로나스>국가자동차정보시스템이 없이 자동차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달러의 환율이 점차 안정화 되고 사람들도 환율변동에 익숙해져 자동차 구입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빅토르 홀리체브 세관장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차를 바꾸려는 욕구를 주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자동차 판매장에서 신차 구입은 모두에게 먼 얘기일 수 있으나 중고차 구입은 훨씬 수월하다.

Количество ввозимых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автомобилей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увеличилось в 2,5 раз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 было ввезено 1627 автомобилей, из них 1517 — физическими лицами, остальные — юридическими. В 2017 году машин было ввезено 674.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областной таможне. О тенденции роста ввоза авто из-за рубежа уже сообщалось в октябре, сейчас же можно назвать статистику в целом по году.

Рост почти в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раза таможенники называют неплохой тенденцией и связывают с несколь-

кими причинами. Во-первых, теперь можно ввозить автомобили б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ЭРА-ГЛОНАСС". Во-вторых, курс доллара более-менее стабилизировался, люди привыкли к нему и могут планировать покупки. Но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аможни Виктор Холичев считает желан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бновить авто. Приобрести новую машину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м салоне может далеко не каждый, привезти автомобиль б/у гораздо проще.

사할린 향토사학자 회귀 사진 담은 사진집 출판

사할린 향토사학자인 이고리 사마린은 유명하고도 잊혀진 격전지의 사진을 담은 <무공의 섬> 사진집을 출간했다. 사진집 발표회는 1월 23일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에서 열렸다. 사마린은 이 사진집 제작에 적잖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천운도 따랐다고 했다.

사진집 출간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때인 12년 전부터 기념 장소와 대상에 대한 사진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 향토사학자는 장래 출판물을 위한 자료들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했다. 1945년 8월에 사할린섬에서 전투를 치렀던 전몰장병들의 공동묘지와 기념비를 방문하며 가는 길에 마주친 정돈되지 않아 훼손된 영웅들의 묘지들이 사학자를 슬프게 했다. 몇몇 지역에 현지인들도 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장소들이 과거의 역사적인 곳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사진집에는 주로 사할린과 쿠릴섬들의 격전지에서 찍은 풍경사진들이 들어 있다. 이외에도 접근이 어려운 벽지와 방문 흔적이 없는 오지의 풍경을 담고 있다. 나는 이 사진집 속에 유명한 곳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대부분의 풍경사진에 참고로 역사적 자료, 쿠릴섬 해방작전과 전투 참전자들의 사진을 첨부했다."라고 사마린은 말한다.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공원에서는 <무공의 섬>사진집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구입 희망자는 살 수도 있다.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выпустил фотоальбом с редкими снимками

Сахалинский краевед Игорь Самарин выпустил фотоальбом «Острова ратной славы», в который вошли снимки известных и забытых мест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резентация издания состоялась 23 январ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Самарин рассказал, что в работе над небольшой книгой было задействовано немало людей, а также не обошлось без счастливых случайностей. Собирая снимки памятных мест и объектов он начал еще 12 лет назад - тогда еще и не помышлял о выпуске фотоальбома.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искать материал для будущего издания краевед начал в 2014 году: посещал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памятники и братские могилы тех, кто воевал на островах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Огорчили историка попавшиеся на пути неухоженные и разрушенные могилы героев того времени. А в некоторых местах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и не подозревали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прошлом привычных для них мест.

- Этот альбом состоит в основном из пейзажных фотографий, которые были сделаны на места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роме того, запечатлены достаточно труднодоступные места и непосещаемые ландшафты. Я постарался отразить в этом фотоальбоме как известные места, так и те, о которых мало кто знает. В качестве дополнения к большинству ландшафтных зарисовок приведены исторические справки, фотопортреты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операций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островов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 рассказал Самарин.

С «Островами ратной славы»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там же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его купить.

(7면에 계속)

사할린 동포들에게 <세상에 하나 뿐인 달력 2019>을 전달하는 대표단 사할린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김종철 지구촌 동포연대 공동대표

다시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8천만 겨레 하나되는 날까지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사무국장



6번째 달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는 모스크바지역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보냈구요.

매년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동포들이 있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점점 볼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어 안타깝습니다.

한분 한분이 사할린 동포의 역사인데 그분들의 소중한 역사를 잘 보존하고 기억할 수 있게 사진 한 장이라도 남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동포분들마다 사진들, 옛날에 쓰던 물건들 잘 가지고 계시라 말씀드리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만 나서서 될 게 아니고 동포사회가 다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동포분들도 공감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연구소 박봉수 소장



디아스포라연구소는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국외에 체류하는 동포들을 지원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디아스포라연구소는 '인천고려인문화원'으로 넘어와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동포연대에서 해마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만들어 사할린에 계신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을 받고 천진난만하게 함박웃음을 지으시는 어르신들을 상상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함께하는 영광을 얻었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온몸으로 웃으시는 것을 뵈게 되어 기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지금처럼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라는 욕심입니다.

저는 인천으로 영주귀국하신 어르신들을 늘 가까이에서 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모습들을 뵈면서 마음만 조금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한분 한분은 우리나라 근

· 현대사의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이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박물관 한 채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분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증언을 글로, 영상으로 남겨 이분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울림이 되게 할 소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임이 디아스포라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사할린은 얼어붙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희망이 출렁이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슬픔의 역사를 온몸으로 감내한 사할린에 계신 사할린 동포들이 일궈 놓은 피와 땀방울 덕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바람은 러시아 사할린에 거주하는 3만 1천여 명의 한인의 위상과 권익을 위해 30여 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온 '사할린한인'의 '사할린한인협회'가 존속되어 지금처럼 '한인'이라는 자긍심을 느끼면서 하나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할린에 있는 우리의 민족 미디어인 새고려신문과 우리말방송국은 곧 한인의 위상입니다. 이 두 민족 미디어가 존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관 변호사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고 있고, 동시에 한국에서 체류하는 이주/외국인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이주민

센터 친구>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사할린 한인 1세 김윤덕 할아버지의 등록부(호적) 정정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등록부에는 할아버지께서 오래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또 실제 생년월일도 달랐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김윤덕이 사할린 시네고르스크에 살아 있다.", "내가 태어난 날과 제사날은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싶다."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할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하나씩 공부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제 능력이 부족해서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 좋은 결과를 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난 해 12월 말, 한국 법원은 할아버지의 소원 그대로 사망으로 기록된 등록부를 다시 만들고, 생년월일을 제대로 기록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할린 방문은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고, 할아버지 묘소에 들러 술 한 잔 올리드리고 싶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동행하

게 된 지구촌동포연대(KIN)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매년 음력 설에 계속 함께 오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윤덕 할아버지와 같이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의 사건이 있으면 지구촌동포연대와 함께 마음 모아 돕고자 합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신미지 선임간사

저는 한국의 권력감시 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평화군축과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에 꼭 한 번쯤은 와봐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마 10년 전쯤 일본의 우토도로를 방문했던 경험 때문에 더 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편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역사적 아픔과 그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 끌어안은 분들 덕에 가능한 것 같아 늘 죄송한 마음이 들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사할린 소감을 말하자면... 그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전에 몰랐던 것도 죄송하고, 앞으로 더 힘이 되드리고 싶지만 얼마나 힘이 될지 몰라 또 죄송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척박한 땅에서 그 힘든 시간을 누구보다 강단있게 버티고 삶을 꾸려나가신 분들의 용기를 배우고 갑니다. 슬픔의 역사지만 승리의 역사로도 기억하고 싶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김지연 사진작가

2014년부터 음력 달력을 만들어 KIN과 함께 매년 왔습니다.

그때 마다 사할린 동포분들이 음력달력을 보시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 우리 동포분들이 보고 싶어 할 풍경들을 사진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달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음력달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KIN(지구촌동포연대) 구태희 운영위원

1인 시민활동가이자 지구촌동포연대 운영위원 구태희입니다.

매년 달력을 가지고 사할린 동포를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뵈기 힘든 1세분들이 많아지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주최하는 청소년역사캠프를 도와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 풍성하고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한인 3~4세 청소년을 많이 만나길 기대합니다!

꿈꾸는다락방 청소년 활동가 조은기

한민족인 만큼 우리 젊은 층의 청소년 친구들과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밴드음악이나 케이팝댄스 축제 등 문화예술이나 청소년 교류 캠프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삶에 동기부여를 찾고자 구태희 선생님과 함께 왔습니다.

역시나 기대한 만큼 심적으로도 많은 걸 얻어갑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동포들을 위하여 내 역할을 찾아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세홍 사진작가



아시아의 일본군성노예 피해여성들의 기록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에 계셨던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할린 한인분들의 삶을 공감하기 위해 왔습니다.

보쉬냐코위에서 만난 조영제 할아버지에게 해방 전후 강제징용을 비롯해 이후의 삶을 두 시간 넘게 직접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과 문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인 1세대분들이 걸어온 길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우쿨레고스크, 염창월 할머니집에서 만난 세 분의 할머니는 척박한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 왔습니다. 자신들을 처음 찾아온 우리를 경계가 없이 기쁘게 맞아 주셨고, 웃고 웃기는 가운데 친할머니와 같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할린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만 보아오던 사할린 한인분들의 삶과 역사를 직접 엿볼 수 있었던 것을 인연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블라디딤 류제현 대표이사

일본 강제 징용과 러시아 강제 이주 등 동포문제에 관심이 있어 연해주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일본등지를 다니며 동포 여러분들을 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연 작가의 소개로 지구촌 동포연대 달력 전달 행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할린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특수한 이민사를 조금이나마 듣고 알고 갑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깊은 정 주시고 많은 것 알려주신 동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귀국 후에도 미력이나마 사해동포가 하나되는 날까지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разгорается скандал внутр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дала в суд на компанию «Роз-Агро», которая в августе 2018 года воздвиг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безымянным корейцам. Этот памятник, считают религиозные корейцы, оскорбляет их чувства. Истцы требуют признания мемориала самовольной постройкой, а также последующего сноса памятника.

— С момента появления этого мемориала ко мне поступило множ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от оскорбленных людей, — рассказывает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 поэтому я не могла не отреагировать. Мы вместе с этими людьми составили исковое заявление и обратились в суд.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дали в суд на иностранного бизнесмена из-за памятника их предкам

лись в суд.

Мемориал безымянным корейцам, навечно оставшимся на острове, находится на корсаковской трассе возле Олимпия-парк. Территорию для памятника компания «Роз-Агро» взяла у муниципальной власти под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днако вскоре на этом месте появился и памятник, возле которого регулярно собираются турист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считают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мятник должен быть признан судом самовольной постройкой.

— Этот мемориал предназначался в память о тех, у кого не осталось родственников, — объясняет Пак Сун Ок, — он так и назывался «Мемориал безымянным корейцам».

Нам обещали, что там будут имена лишь тех, кого некому помянуть. Но люди, которые его установили, почему-то включили в список имена тех корейцев, у которых есть живые родственники. Это крайне недопустимо по нашим традициям.

Как утвержд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омянуть умершего допустимо лишь в одном месте и только ближайшему родственнику по старшинству. Нельзя, чтобы умершего поминал незнакомый ему человек,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того случая, когда у погибшего не имеется живы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 Я тоже нашла имя моей матери, — рассказывает Пак Сун Ок, — мне ежедневно звонят люди, которые также находят на

этом мемориале имена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Люди растеряны и оскорблены. Мы неоднократно пытались достучаться до тех, кто установил этот мемориал, но им наплевать на наши чувства. Им нужен лишь масштаб — чтобы памятник содержал в себе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имен.

Теперь за результатами судебного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а будут следить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лигиозные чувства которых оскорблены.

«Про Сахалин» пытался связаться с гражданином Кореи Хюн Док Су, чья компания установила этот мемориал, но его телефоны не отвечали. Наша редакция готова выслушать его позицию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Мемориальные таблички с именем умерш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Источник: сайт «Про Сахалин», 28.01.2019)

Издан каталог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вышло в свет уник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каталог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талог коллекций из собр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1945–2018 гг.)». Авторами каталога являются хранители музея — Ким Ен Хи (Ирина Борисовна) и Кира Яковлевна Черпакова.

Каталог представляет читателям предметы, которые были собраны сотрудниками музея или подарены ему корей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616 предметов и фотографий отражают богатую и интересную историю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талог содержит изображения и описания предметов быта и мебели, документы, письм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фотографии, а также персональные коллекции корейцев Ким Чун Ген (Тамары Васильевны),

Ким Чун Су и Хан Александры Степановн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за пост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становились предметом изучения ученых. Однако в основном историки сосредотачивались на «историче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блемах — проблеме репатри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адаптации к жизни в советском и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Работ же, которые посвящены культурному аспекту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чень мало (пожалуй, только исследователь Пак Сын Ы в своих работах изучал эту тему). Восполнить пробел в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м изучении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и призван каталог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талог содержит развернутый справочный аппарат — помимо глоссария, в который включены, в

том числе, и переводы япо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названий предметов, авторы составили подробные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и именной указатели. В последнем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 только встречающиеся в издании имена, но и важная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 биографи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ередавали музею предметы вместе с историей своих семей.

Презентация каталог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стоялась 24 января 2019 г. и вызвала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пришедших гостей.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каталог — это только первый шаг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изучения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н должен стать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м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е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изучения.

Юлия ДИН

Сахалинскому отделению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исполнится 30 лет

1 февраля в 18:00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посвященный 30-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творче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юз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образованного в 1989 году, сыграло важную роль в общем становлении культуры нашей области. На вечере расскажут об истории созд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ТОО «Союз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о тех, кто стоял у его истоков и о тех мастерах, чье творчество сегодня радует поклонников и цен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остав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входят 19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Это живописцы, графики, скульпторы, мастер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искусствовед. Пять мастеров удостоены звания Заслуженного художника России: Анатолий Ни, Гиви Манткава, Владимир Чеботарев, Дю Мен Су, Юрий Степанов. Сахалинский живописец Петр Шищенко был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Заслуже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творче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юз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Союз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ий фонд культуры.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украсят выступления камерного ансамбля «Дивертисмент»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лександра Лопатина, саксофониста Алексея Ана, певицы Анны Двуреченской, поэта-песенника Тэхо Чана, исполнителей бардовской песни: Сергея Хана и группы «Варианты», а также других сахалинских артистов, сообщили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4 февраля в 17.30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Живу между небом и морем» сахали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Сергея Ян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ортрет сахали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Поэт и прозаик,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автор книг прозы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ёз», «Сон Одинокого Облака», «Слушая песни дождя» и двух поэтических сборников в марте 2019 года отметит свое 70-летие. Повести, путевые заметки 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талантливого писателя, наполненные светлой грустью, любовью и нежностью, находят отклик в сердцах многих люде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приглашает на Дни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7 февраля по 17 марта 2019 г.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в рамках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приглашае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Дни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ает проведе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занятий, мастер-классов, экскурсий, видеопозаказов по культуре, искусству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7 февраля — День культуры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10, 28 февраля — День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4 февраля —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17 февраля — День киргизской культуры
24 февраля — День бурятской культуры
2 марта — День алт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5, 6, 16 марта — День татарской культуры
9 марта — День башкирской культуры
17 марта — Гала-концерт «Культура моего народа»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новогодние выходные корейцы отправятся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В период выходных по случа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 1 по 7 февраля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отправятся 48 млн 950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Пик этого явления придётся на 4 февраля, накануне праздника, а также на 5 февраля, в сам праздник, когда начнётся массовое возвращение домо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В качестве транспорта 86,2% корейцев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личные автомобили, 9% - автобусы, 3,9% -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0,6% - авиатранспорт, 0,3% - водный транспорт. В связи с приближ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власти принимают мер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максимального комфорта граждан в пути. В период праздничных выходных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специальный центр по осуществлению круглосуточного контроля за ситуацией на дорогах.

Япония выразила намерение нормализ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КНДР

28 января в послании к парламенту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заявил о стремлении к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КНДР, забыв о плохих событиях прошлого. Он также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ен Ыном, сняв взаимное недоверие в целях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похищенных японцев, а также ядерного и ракетного оружия. Однако относительно РК он был очень краток, отметив лишь, что Токио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ША и РК, а также с другими членами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индзо Абэ никак не затронул нынешний спор РК и Японии вокруг инцидента с опасно низким полётом японского самолёта, а также протест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ы по реш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уда о компенсациях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 выразил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позиции по вопросу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нституции страны в целях укрепления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 супругой побывали на концерте артистов из КНДР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и Цзиньпин и его супруга Пэн Лиюань встретились 27 января в Пекин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ТПК Ли Су Ёном 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на концерт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труппы «Сам-джиё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Синьху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ансамбль находится в Пекине с 24 января.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видение Китая сообщило, что выступление артистов из КНДР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не только в пл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но и в связи с 70-летием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ыступления проходили на фоне пейзажей Пхеньяна, а три года назад на подобном концерте фоном были изображения ядерного и ракетного оружия. Такие изменения,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связаны с предстоящим вторым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саммитом. После концерта Си Цзиньпин и Пэн Лиюань поднялись на сцену. Они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артистов и сделали с ними общее фото. Си Цзиньп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ан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частью двусторонних обменов.

Скончалась жертва преступлений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Ким Бок Тон

Вечером 27 января скончалась жертва преступлений японской армии – 92-летняя Ким Бок Тон, которая была символом движения за признание Японией своей вины за сексуальное рабство. С 2017 года она боролась с раком, а 17 дней назад её состояние резко ухудшилось. Ким Бок Тон родилась в городе Янс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в 1926 году. В 1940 году в возрасте 14 лет она была принудительно угнана японцами для работы в полевых борделях, где она провела 8 лет. В марте 1992 года она открыто заявила о том, что была жертвой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и с тех пор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а в движении за права жертв этого преступления. Глава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женщин-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Юн Ми Хян сообщила, что Ким Бок Тон до последнего момента выступала против позиции Японии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реди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живых остались 23 человека.

В РК отмечается первый в 2019 году День культуры

30 января в РК отмечается первый в 2019 году День культуры, который назначен на последнюю среду каждого месяца. Данный день был учреждён в целях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доступа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к культурным контентам, когда можно бесплатно или с большой скидкой посмотреть фильм в кинотеатре,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и, спектакли и различ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сообщили, что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остоятся около 1.300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том числе,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 показы фильмов с большими скидками или бесплатно. (RKI)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четвертого поколен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будут признавать зарубежн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четвертого поколен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будут признавать зарубежн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25 янва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К. Ведомство готовится к внесению изменений в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 выезде и въезде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К и их правовом статусе».

Действующи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до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Из-за этого многим из дет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шлось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и расстаться со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Если внес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в Указ вступят в силу после 4 марта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включа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четвертого поколения, получат права на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максимум на три года и могут продлить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без затруднений. Они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авам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при торговле недвижимостью и совершении финансовых операций, а также 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еимуществами медицинской страховки.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 2017 году разрешило им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поддержке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нудительно пересел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 и в Сибирь».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декабр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которых временн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данный закон, составляет 516 челове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тметили,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ся 100-лети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и основания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Учитывая это,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силу Указ будет гарантиров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четвертого поколен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права на нахождение внутри РК и правовой статус, что предоставит им шанс внести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одины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гордость».

Наряду с эт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ланирует ввести программу для успешной адаптации в РК. Это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этикета и понима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сточник: korean.net)

Бесплатный ланч для выпускника

В Южной Корее считается, что завтрак школьники должны есть дома, но вот в отношении обедов существует развитая систем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образование для детей в течение девяти лет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это так называемая школа начальной ступени (шесть классов. - Прим. ред.) и средней ступени. Оставшиеся три года в школе высшей ступени не обязательны, хотя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учатся 12 лет.

Основная господдержк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обеды, а не на завтраки. Школьникам в первые девять лет обучения с утра раздают по 200 мл молока. Что касается обедов, существуют некоторые различи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нкретного региона, но, к примеру, в Сеуле питание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начальной и средней ступени бесплатное, тогда как за обеды в классах высшей ступени платят по 100 тысяч вон в месяц (около 89 долларов. - Прим. ред.). Впрочем,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и учеников выпускных классов высшей ступени стали кормить обедами бесплатно. Считается, что ребята тратят все время на подготовку к ЕГЭ, а потому надо всем гарантировать нормальное питание.

Обеды вкусны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Самые младшие школьники обычно питаются прямо в классах,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кладывая еду на подносы, тогда как ребят из средней и высшей ступеней кормят в столовых.

Олег Кириянов (РГ)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гласила КНДР вместе отметить годовщину ОИ в Пхенчхане

Провинция Канвон,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ой расположен Пхенчхан, пригласил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месте отметить годовщину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2018 в Пхенчхан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Чхве Мун Сун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ая прошла в Клубе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в Сеуле.

Напомним, что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2018 года стартовали 8 февра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НДР направила свою сборную, а такж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делегации,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ях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Игр. ОИ в Пхенчхане стали мероприятием,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ло существенно улучшить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сблизиться Сеулу и Пхеньяну.

По словам губернатора Чхве,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годовщины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ОИ-2018 они задумали целую серию мероприятий, где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участие и гостей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реди акций - хоккейный турнир с участием сборных Юга, Севера, Латвии и Венгрии, совместные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тхэквондистов Юга и Севера, а также "концерт мира".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хоккейном турнире хоккеисты Юга и Севера будут выступать вместе, в составе сборных "Единая Корея-1" и "Единая Корея-2".

"Мы уже отправили официальное приглашение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ждем их ответа", - добавил Чхве Мун Сун,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примут приглашение и приедут в Пхенчхан.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 том, кого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хотел бы видеть на мероприятиях, Чхве Мун Сун с юмором ответил, что "конечно был бы рад приезду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но затем добавил, что официальное приглашение отправлено на имя главы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КНДР Ким Иль Гука. Чхве подытожил, что будет рад приезду любых гостей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сутствие которых поможет продолжить "наследие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ачатое на ОИ-2018. Олег Кириянов (РГ)

Турпоток россиян в Южную Корею превысил прошлом году 3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вших Южную Корею граждан РФ в 2018 году превысило 300 тысяч человек. Это следует из статистики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осетивших в 2018 году иностранце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туризма Кореи (НОТК).

Согласн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НОТК данны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Южной Корею побывало более 15 миллионов 300 тысяч туристов. Это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2017 года на 15,1 процента или на 1 миллион 32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первой пятёрке стра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торой чаще всего посещают Корею, находя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седи по региону - Китай, Япония, Тайвань и Гонконг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1-3 и 5 места), а также США (4 место).

Россия оказалась на 10-м месте,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в показатель в 3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тране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побывали более 302 тысяч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302 542 человека. Это на 11,9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Самыми популярными для россиян направлениями в Южной Корею являются Сеул и Пусан, а также отдых на курортном острове Чечжу. Хватает среди граждан РФ и тех, кто приезжает в Корею в качестве "медицинских туристов" - для получения различных услуг в сфере медицины.

Отметим, что двусторонн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обмен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растет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Во многом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 двусторонний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который введен с 2014 года. По данным за первый квартал прошлого года, южнокорейцы стали в числе главных лидеров по темпам роста количества визитов в Россию. Корейцы чаще всего приезжают в РФ в Москву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Кроме того,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жит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пользуется Владивосток. Как пояснили в одной из мест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Владивосток удобен тем, что расположен всего лишь в паре часов полета от нас. Кроме того, для корейцев это шанс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увидеть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ую культуру, которая совершенно отлично от более привычных нам стран Азии. Некоторые называют Владивосток "близкой к Корею Европой".

Корейцы же в целом очень активно сами ездят за границу. По данным НОТК, в 2018 году был установлен рекорд. Число поездок корейцев за рубеж за год выросло на 8,3 процента, составив около 28 690 тысяч.

Олег Кириянов (РГ)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о памят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75-летию снятия блокады Ленинграда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собрались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бывшие жители блокадного гор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студенты и школьники.

Со сцены прозвучали строки стихотворений и воспомин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событий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Одна из них - Гертруда Жуковская. Ей было 8 лет, когда началась блокада.

- 8 сентября 1941 года. Это был обычный солнечный день. Но в опустевшем городе уже висело какое-то напряжение. Тогда мы еще не знали, что война будет долгой и принесет столько несчастья, - поделилась Гертруда Жуковская.

Еще одна жительница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Нина Мигунова часто говорит с подрастающим поколением о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Не стало исключением и сегодняшнее мероприятие.

- Дети уже очень мало знают, что такое война, что такое блокада, с открытыми глазами слушают нас. Но там было столько жестокого, такого, что ребятам до шестого класса и говорить нельзя, - признается Нина Мигунова.

Выступая перед собравшимися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 И напомн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 75 лет по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е и, прежде всего, в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е проходят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Дню освобождения Ленинграда.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них участвует все меньше ветеранов, которые могут рассказать о событиях тех лет. Самое главное сегодня - наше желание, стремление и общая обязанность -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героических страницах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За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егодня в зале так м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олодежи, которые пришли услышать истори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 сказал Владислав И.

Напомним, блокада Ленинграда длилась с 8 сентября 1941 года по 27 января 1944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по разным данным, погибло от 600 тысяч до 1,5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в России рельсовые автобусы начнут курсировать по Сахалину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появится новый вид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 рельсовые автобусы или рельсобусы. Первый такой дизель-поезд малой составности и повышенной комфортности будет ходить по маршру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Корсаков.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встрече главы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начальник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Николаем Маклыгиным.

Всего для Сахалин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упить 3 современных рельсовых автобуса марки РА-3. Использовать их будут на пригородных маршрутах. Новейшие рельсобусы имеют улучшенный внешний вид и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й пассажирский салон. В своем составе они могут иметь от двух до шести вагонов. Максимальная вместимость - до 600 человек. Пассажирский салон и кабина машиниста оборудованы системой климат-контроля с обеззараживателями воздуха. Предусмотрены места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универсальные санитарные комплексы.

Покупка новой техники станет возможной благодаря завершению работ по перешивке островной магистрали на общесетевой стандарт колеи. Кроме того, на Сахалин будут поставлены 18 пассажирских вагонов новой серии, которые начнут курсировать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Ноглик, а также 138 тележек для них.

— Переход на широкую колею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новить парк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техники в регионе. Это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перевозок, повысить их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уровень комфорта пассажиров,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стоит переустроить на общесетевой стандарт РЖД 113 километров колеи. На время перешивки работ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будет при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рыть движение от Холмска до Взморья, во втором - от Взморья до Поронайска, а третьем - от Поронайска до Ноглик. Перекладка начнется 1 июня и завершится к 25 августа.

В это время перевозка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автобусами, авиацией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 на действующих участках. Например,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ассажиров будут автобусами доставлять до Поронайска, а дальше — п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до Ноглик. Об изменении графика работ пассажирск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известит граждан заранее. Доставка грузов по острову в период ограничен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автотранспортом.

— Все изменения мы согласуем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анее предупредим людей и бизнес,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планировать свое

передвижение, — сказал Николай Маклыгин.

Позтапная перешивка узкой остров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колеи на ширину 1520 миллиметров началась в 2003 году.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также полн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путевого хозяй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мостов и водоотводных сооружений, спрямление пути, увеличение площади поперечного сеч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е тоннелей.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перешивку дороги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0 году.

Сахалинцы вошли в число финалист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управленцев «Лидеры Росс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состоял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26-27 января. В мероприятии участвовали 240 жителей макрорегиона, среди которых - 10 сахалинцев.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Наумов встретился с полуфиналистами от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бсудили актуальные дл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опросы и способы их решения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идей конкурсантов.

- Все участники — яркие, динамичные, состоявшиеся личности. Они знают и любят свою страну, свой регион и умеют добиваться результатов,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встречи Сергей Наумов. — Они уже победители, потому что в условиях мощ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пробившись в число самых лучши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край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обновлении управлен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и именно такие люди необходимы для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Напомним, «Лидеры России» — это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задачей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поиск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 талантливых управленце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За выход в финал боролись 14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ранее прошли онлайн-тестирован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демонстрацию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и управлен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10 из них были допущены к очному этапу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итогам испытаний в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прошли 30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из которых двое — сахалинцы — Андрей Протопопов (АО «Электрощит») и Артем Российченко («Сахали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Все они теперь должны реализовать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в рамках задания «Сердце лидера». Финалисты получа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гранты в размере 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а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 еще и наставника — известного бизнесмена или управленца. Также у них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асть в федер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кадрового управленческого резерва.

Фина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нкурса «Лидеры России» пройдут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в Сочи. Участие в них примут 300 лучших конкурсант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Цена на сахалинскую навагу продолжает снижаться

За прошедшую неделю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этот вид рыбы подешевел на 40 рублей,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 на 10 рублей, в Макаровском — на 16 рублей. Средняя цена на свежевыловленную навагу в целом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низилась со 110 до 93 рублей за один килограмм.

- Обеспечение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ежей рыбой — важнейшая задача островных властей. Во многи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региона сегодня введены социальные цены с минимальной торговой наценкой на значимые виды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 рыбы, в том числе на навагу,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новными поставщиками свежемороженой рыбы на прилавки островных магазинов являются предприятия из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 рыболовческий колхоз «Дружба», зверосовхоз и «Поронайский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завод», а также ООО «Рыбак» из Макарова. У последней в списке компании сложилась самая низкая отпускная цена на навагу - 55 рублей за один килограмм.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веж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жителям в регионе подготовлены 160 торговых точек.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ближайшие выходные дни на традиционной площадке за магазином «Техник» начнется продажа свежей наваги по цене производителя 75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 уточнила Инна Павленко.

Житель Корсакова Дмитрий Забелин сам заядлый рыбак, а когда не клюет — покупает навагу в ближайшем магазине.

— Здорово, что цена в этом году нормальная, а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больше. Зимой навага — фаворит в нашем семейном меню, как, наверное, у большинства сахалинцев, - отметил корсаковец.

Рекомендованный к вылову объем в этом году - почти 5 тысяч тонн наваги. Это слишком много для Сахалина, поэтому часть улова отправят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20 процентов всей выловленной наваги традиционно останется на складах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вать рынки и магазины области и тогда, когда вылов 2019 года уже закончится.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совет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в Афганистане и други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отметил 20-летие

Торжество состояло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с юбилейной датой поздрав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 И.

Он особо отметил работу совета с молодежью. Встречи со школьниками и студентами, рассказы о героизме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наших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способствуют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формированию у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авильной жизненной и гражданской позиции.

—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и ваших соратников с 20-летие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в Афганистане и други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За это время организация многое сделала для защиты интересов людей, воевавших в «горячих точках», а также их семей, оказала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решении социальных, правовых, жилищных и иных проблем. Все это во многом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конструктивн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руги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 сказал Владислав И.

Напомним, в 2019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полвека военным событиям, происходившим на острове Даманском, 30 лет с момента вывода из Афганистана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и 25 лет от начала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в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В знак уважения и признательности к ветеранам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памяти тех, кого уже нет в живых, в преддверии юбилейных да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 одновременной денежной помощи ветеранам и членам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Его инициировала организация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 Ветераны-участники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на острове Даманском получают п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Родственники погибших (умер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Республике Афганистан - п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в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 по 25 тысяч рубле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более 70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оме того,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направят свыше 1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поддержку инвалидов и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овая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веден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Инвалиды и ветера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являющиеся неработающими пенсионерам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по 1,5 тысячи рублей. Получателями ежемесячной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станут более 700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плата носит заяв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ее оформить в отделениях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 готовится к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гр «Дети Азии»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д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масштабное событие, идет монтаж необходимых конструкций. Самая большая из них - 24-метровый маяк, на вершине которого зажгут огонь игр.

На главной сцене расположится около 90 элементов. Декорации растянутся на 100 метров в длину, средняя высота объектов составит около 13 метров.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на Сахалин привезли новый сцен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 В его комплектацию входи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что позволяет из одной большой сцены сделать две стандартные,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Илья Александров.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1400 человек, не считая волонтеров. На сцену поднимутся 25 мест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а также артисты из Новосибирска,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 планах - выступления звезд, имена которых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ка не раскрывают. Известно лишь, что это будут олимпийская чемпионка, модный ди-джей и вокалисты. Репетиции артистов начнутся с 1 февраля.

- Мы разделили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на три блока. Первый - расскажет об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второй - о России, наших традициях, а в последнем - мы поговорим 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и будущем. Все будет объединено в одно большое красоч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 рассказал режиссер церемоний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игр Игорь Селин.

Ожидается, что свидетелями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танут более 5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ейчас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заменяют сломанные сидения. Идет к завершению подготовка льда, на котором выступят фигуристы.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ели работу по защите нового покрытия футбольного поля.

Напомним, первые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пройдут с 8 по 17 февраля 2019 года. В ни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500 спортсменов, 1000 волонтеров и 600 судей. Участники игр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победу в восьми зимних видах спорта: горных лыжах, сноуборде, биатлоне, лыжных гонках, прыжках с трамплина,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шорт-треке и хокке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지방 사할린 한인들과 만남을 갖고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전달, 현 한인회 문제 설명

(2면의 계속)

사진에는 서울과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 있다.

또한 우글레고르스크 한인들이 많은 소식을 새고려신문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저녁시간 방문단은 염창월 할머니 댁에서 즐겁게 보냈다. 염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28일 아침. 최문자 전 우글레고르스크이산가족회장의 인솔로 우리 버스는 보쉬냐코워로 떠났다.

우글레고르스크에서 약 80 킬로미터 거리인데 목적지까지는 거의 2시간이 걸렸다. 도로 상태가 좋았지만 산길이어서 오르막과 내리막을 지나느라 속도를 내지 못한다. 보쉬냐코워까지 가는 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하얀 눈으로 덮힌 산들 - 겨울 동화 속에 있는 듯 했다.

우리 방문단은 조영제(1932)·한찬순(1936) 씨 내외를 찾아갔다. 조 할아버님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점심시간 즈음 도착하니 할머니께서는 한 상을 차려놓았다. 떡도 해주시고 묵도 쏘아놓으셨다.

조영제 웅께서는 한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 보쉬냐코워 한인들이 학살당할 뻔한 이야기, 정말로 듣기 어려운 이야기인 타코베야에서 사는 이



야기를 들려주었다. 2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났다. 조영제 할아버지는 우리 신문 애독자이다. 신문사에서 왔다고 하니 나를 금방 알아보았다. 그가 아끼고 보관하는 조로사전, 일러사전, 한글책 중에는 조 할아버지의 부친이 직접 적으셨던 공책들도 있었다. 한 노트에는 조 웅의 아버님이 적은 족보였다. 조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록을 계속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된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이 기록물들을 잘 보관하시고, 절대 버리지 마세요."라고 했다. 길게 이야기를 나누어

고 싶었지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집 앞에서 포옹을 하고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오후 5시 샤흐초르스크 시청 강당실에서 우리를 25여 명의 동포들이 기다렸다. 샤흐초르스크한인회 최문갑 회장에게 달력과 음력설행사 지원금을 전달했다. 방문단 소개를 하고 킨 단체 활동, 주한인회 사

업 보고, 무연고 추모관 문제 등 - 주제는 우글레고르스크 한인들과의 만남과 같은 문제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유즈니로 떠났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더 짧다 하니 4시간반 만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 학교 교정에 기념조각상 세웠다

홉스크 구역 코스트롭스코예 마을 학교 교정이 세 계대전의 전사자들을 추념하는 장소가 되었다. 학생들은 교정에 기념조각상을 세우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각상 구상도 해냈다. 학생들의 기획 실행은 <청소년기금>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마르크 베르네스의 노래에 전몰 장병들의 영혼은 학이 되었다는 노랫말이 있다. 학들의 끝없는 비행을 코스트롭스코예 학생들이 과제로 주어 사할린의 조각가들이 형상화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아이디어와 앞으로 조각될 기념비 구상 도안도 학생들이 고안해냈다. <청소년기금> 지원프로그램은 구역 내 125개 학교에 확산되어있다. 학생들은 시, 촌, 향토마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야 하는 비용은 300만 루블리 정도다.

"투표를 진행해 학생들은 기획들을 선정했다. 아마도 가장 현실적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만 아니라 전 마을의 주민들에게도 필요했는지 모른다."라고 코스트롭스코예 마을학교의 옴게니아 코텔리니코와 교감이 덧붙였다. 학생들의 투표가 끝난 이후부터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1년이 지났다. 현재 학생들은 새로운 기획을 구성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들의 견해로는 코스트롭스코예 운동장을 재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마을에는 강력한 청소년팀이 있으나 연습할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아이디어 기획 중에는 새로운 어린이 놀이터와 소규모 교통도시도

있었다. <청소년기금> 프로그램이 2019년까지 연장되어 이 기획이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Во дворе сахалинской школы появилась мемориальная композиция

Двор школы в холмском селе Костромском стал местом почитания умерших в мировых войнах. Идею соорудить в нём мемориальную композицию подали ученики, они же придумали её концепцию. А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у них получилось при помощи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ое бюджетирование».

В песне Марка Бернеса в журавлей превращались души павших солдат. В этом вечном полете их и запечатлели сахалинские скульпторы по заданию учеников Костромского. И идею, и пример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будущего мемориала придумали в стенах школы.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получилось с помощью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ёжный бюджет».

Он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125 школ региона. Их ученики разрабатывают идеи по улучшению жизни родного села, поселка или города, уложиться необходимо в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Было голосование, дети выбирали проекты. Этот, наверное, оказался самым актуальным. Возможно, потому что он нужен не только школьникам, но и всему селу, - объясн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школы села Костромского Евгения Котельникова.

От завершения дет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до установки мемориала прошел примерно год. Сейчас школьники планируют подать заявку с новым проектом. По их мнению, в Костромском необходимо обновить спортивную площадку - у села достаточно мощная юношеская сборная, а вот заниматься почти негде. Среди других идей были также новая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и мини-автогородок. Возможно, они победят в будущем: программа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продлена и на 2019 год.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우리말로 깨닫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우리말에서 말과 소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말일 것이고, 자연에서 들리는 것은 소리일 것이다. '목소리가 좋다.'라는 말은 말의 의미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음성이 좋다는 뜻이다. '바람소리, 새소리, 벌레소리'처럼 말이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사람의 말을 '말'이라고 하지 않고, '소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말을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보지 않고, 그저 귀에 울리는 소리만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된다. 당연히 귀담아 들을 리가 없다. 흘러드는 말이 되는 것이다.

우리말에서 말이라는 표현 대신에 '소리'라는 표현이 쓰인 어휘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잔소리'는 말이 아니라 소리일 뿐이다. 하는 사람의 생각은 교훈이 담겨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이다. 종종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소리일 뿐이다. 잔소리는 소리 중에서도 작은 소리를 의미한다. 부스리기 같은 말이니 핵심이 되지 않는 말을 의미한다. 쓸데없는 말이 되는 것이다. '군소리'도 군더더기가 있는 말로 핑계나 변명에 해당하는 말이다. 잔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아마도 아이들일 것이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라고, 버릇을 고치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의 귀에는 단지 '소리'로만 들린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부모는 자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말'인지 '소리'인지. 의사소통은 둘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소리 듣겠다.'라는 말은 '큰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이다. '한'은 '큰'의 의미가 있다. 할아버지는 '한아버지'가 변한 말이고, 황새는 '한새'가 변한 말이다. 모두 '큰'의 의미가 있었다. 황새는 누런 새가 아니다. 황소도 원래는 '큰 소'라는 의미이다. 사람들이 누런 소를 표현한 것인 줄 알고 '황소'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한숨'을 쉬는 것도 '큰 숨'을 쉬는 것이다. 우리말에 '큰소리 나게 하지 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나무라거나 소란스럽거나 화가 나는 장면을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소리'도 '크게 나무라는 말'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없을 때 우리는 나무라는 말도 쉽게 '소리' 취급을 해 버린다. 누구를 나무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반성 없는 이는 꾸짖어도 그다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듣는 이가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서 타이르고, 나무라야 하는 것이다.

'흰소리'는 터무니없는 말을 떠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흰소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헛소리'와 통하는 면이 있다. '헛소리'는 비어있는 소리라는 뜻이니 실체가 없는 허황된 소리가 되는 것이다. 흰소리도 헛소리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다. 말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소리들이기 때문이다. 되지도 않을 일에 허풍을 떨고, 남이 귀담아 듣지 않을 이야기를 떠들어 대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

우리말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도 하는 사람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과 소리의 의미가 분명하게 갈리는 순간이다.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말은 '소리를 하지 말고 말을 하라.'는 뜻이다.

'잔소리, 한소리, 큰소리, 흰소리, 헛소리' 등의 우리말 어휘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쓸데없는 말, 핑계만 많은 말, 소란스럽고 화를 돋우는 말을 피하라는 것이다. 또한 허황되고 의미 없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경고도 담겨 있다. 이런 우리말 표현들을 보면서 나는 오늘 내가 한 말이 '말'이었는지 '소리'였는지 생각해 본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말을 했는가, 소리를 했는가? 나는 어떤 소리를 했을까?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시는
정순현 할머니께
드리는 축하문



만 99
세를 맞
이 하 신
정 순 현
할 머 님!
진 심 으
로 생 신
을 축 하
드 립 니

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
시고 여러 세대 변화를 겪
으신 할머니, 남은 여생 건
강하시고 자녀, 손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편
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
원합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노인회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광고 - 광고

2월 8일(금) 18시 30분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강당
에서 사할린동포 2세 문제
와 기타 문제로 회의가 소
집됨을 알립니다.

희망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운영위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глашает на
собрание, которое состо-
ится 8 февраля 2019 г. в
18.30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
турном центре.

На повестке собрания
обсуждение проблем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рочие во-
просы.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
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
(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 · 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
들(현자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
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
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
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
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십시오.

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с 14 лет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уро-
вень,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и др.)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с 14 января 2019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11 февраля 2019г.

по адресу пр. Мира, 83 а,
офис 3.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Режим работы:

9:00 – 18:00

Обед:

12:30 – 14:00

*При себе иметь фото 3*4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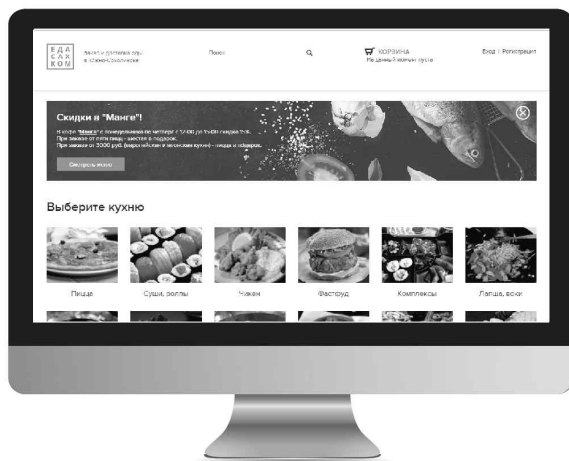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еда.сах.ком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в. (зупл.) 배 위도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